

## 오피니언

## 테마칼럼

생명과 밤상

여성과 소비

교단일기

스토리텔링 파워



이근택

## 송홍 선생을 생각하며

래의 막연한 소망 같은 것일 터이지만 그 래도 광복절을 맞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아이들은 이유사나 윤동주의 시를 낭송하고 이상화의 '빼앗간' 틀에도 복은 오는 가'를 좋아하지만 그냥 감동적인 문학으로만 생각한다. 이런 것이 수능시험에 나온다면 딱 좋겠네 하고 씩 웃는다. 그러면 서도 정작 우리 학교에 조국 광복을 위해 일생을 바친 선생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모른다.

송홍 선생. 그는 등교하다 보면 교문 왼쪽으로, 눈에 잘 띠지 않는 곳에 서 있다. 소나무 사이에서 그의 얼굴은 늘 소나무처럼 겨우물색이다. 목상하는 듯, 펑그리 듯 묵연히 그는 단 위로 흥상만 있고,

네모난 몸통 부분에는 제자들의 글이 새겨져 있다.

"운인(雲人) 송홍(宋鴻) 선생님은 1924년 이 학교에 오시어 우리들에게 활일 정신을 길러 주신 길이 잊지 못할 스승이옵기 임의 뜻을 기리는 문하생들이 삼가 배움의 거울로 삼고자 여기 조촐한 단 위에 영상을 세웁니다. 1967년 11월 2일 서종 일고 문하생 일동"

그는 53세 때부터 우리 학교에서 한문 교사로 재직하였는데, 일제의 감시를 피

해 학생들에게 한국 역사를 가르쳤다. 자율학습시간에 복도에서 감독교사의 동태를 살피는 아이들처럼 교실 앞뒤에 감시하는 아이를 세워 두고 몇몇 학생들의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고 학생들이 검거, 수감, 퇴학당하는 등 탄압이 계속되자, 그는 장기 결근으로 저항하다가 1930년 2월 19일 학교를 떠났다. 그 이후로 15년 동안, 광주시 서동의 조라한 집에서 애인으로 살았다.

이때 찾았던 제자들과 조국의 장래를 걱정하며, 때로 시를 썼다. 고독과 비분의 은거 생활. 그가 썼다는 시는 분실되었으나, 해방이 되자 그는 복직하여 교관에 섰지만, 1949년 6월 18일에 별세하였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그는 민족 분단을 지켜보아야 했다. "다시 우리려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나/ 오는 불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득히 안겨보리라." 1946년 발표된 신석정의 '꽃덤불'에서처럼, 그도 '남북 대립을 극복한 진정한 민족 화합의 세상'을 간절히 소망하였을 것이다.

8월 15일, 광복 후 66년이 흘렀다. 단답은 더욱 고착화되었다. 꽂게 잡아 어부

들의 삶의 터전이던 연평도는 이제 평범한 서해의 섬이 아니다. 화합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도 최근 새 사업자가 선정됨으로써 남북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얼마 전에 '봉산개'라는 영화를 보았다. 장내 높이뛰기를 아주 잘하는 한 사내가 있었다. 남으로 북으로 제 맘대로 휴전선을 뛰어 넘는데 새처럼 날렵했다. 장대만 있으면 한 사람 정도는 가볍게 등에 업고 철조망을 넘어버렸다. 통쾌했다. 그래,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 어처구니없는, 그러나 간절한 상상에 웃으며 한편 가슴이 찡했다.

맹렬 아래에서 있는 송홍 선생을 본다. 나는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삶, 희망과 사랑의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비행기에 내리던 광양 순안공항을 생각한다. 영접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극적인 만남, 그 감격의 순간에 우리 민족이 함께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광주일고 교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종교칼럼



현지

## 몸뚱이는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 있다

랑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있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하였다.

사위성중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름이 바사타였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오직 아들 하나만을 애지중지 생명같이 믿고 낙을 붙여 살았다. 그러던 중 아들은 군병이 들어 죽고 말았다. 여인은 아들을 물고 큰 충격에 빠져 슬퍼 울다가 실상하게 되었다. 그녀는 옷을 벗고 알몸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거리로 뛰쳐나와 내 자식 살려 달라 목을 매며 달려들었다. 그녀를 퍼하여 이리저리 물리고 하던 중 때마침 부처님이 걸식을 하기 위하여 거리로 나오셨다. 실상한 여인은 부처님께 달려가 매달리며 "나의 죽은 자식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다. 이때 세존께서는 초연한 자비심으로 눈을 마주하며 아들을 살려줄 터이니 나를 따라 기원정사로 가자 하셨다.

그녀는 운종일 돌아나니가 결국 겨자씨를 구하지 못하고 돌아와 울상을 지으며 어디 가서 물어도 그런 집은 없다며 호소하였다.

그녀는 자식 찾을 욕심으로 성중에 나아가 겨자씨를 구걸하였지만 조부모와 부모가 죽은 집은 헤아릴 수 없고 아들딸이 죽은 집도 많았다.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에 있느냐하고 오히려 끊임만 들었다.

그녀는 운종일 돌아나니가 결국 겨자씨를 구하지 못하고 돌아와 울상을 지으며 어디 가서 물어도 그런 집은 없다며 호소하였다.

그녀는 운종일 돌아나니가 결국 겨자씨를 구하지 못하고 돌아와 울상을 지으며 어디 가서 물어도 그런 집은 없다며 호소하였다.

"바사타 들어보라! 이 세상 부귀빈천, 노

소남녀를 물론하고 죽지 않을 사람은 없다. 수명에 따라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것이 다를 뿐 나서 죽지 않는 것은 없다. 살아 있는 생명은 생로병사를 면할 수 없고 하늘땅도 성주괴인이 있다. 우주의 원칙을 모르고 네자식 죽은 것만 유통하고 슬프게 여기고 살리려거나 찾으려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자신에 대한 애착과 집착의 애설함이 너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니 애착과 집착을 버려라. 그러나 몸뚱이는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마음이라는 것이다."

부처님의 간절한 가르침에 바사타는 꿈속을 헤매다. 꿈을 깬 사람처럼 허깨비와 같고 그림자와 같은 인생의 정체를 깨달아 비구니가 되어 생사고해를 해탈하게 되었다. 사람은 애정이 바탕되어 부족함이 많아도 정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또한 젊이란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자 하자면 대중가요 가사처럼 정에 옮고 정에 속아 고통으로 돌아오는 것이 많다. 우리는 정과 고통의 순환을 믿음으로 벗어나 인격완성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 신앙이다.

〈무등산 원효사 주지〉

## 기고



김은선

## 밤을 지새는 건강 파수꾼

종 기장 핵심적인 업무는 야간 신속검사이다. 경매를 위해 야간에 반입되는 농산물을 현장에서 바로 수거해, 새벽 경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검사를 끝내고,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을 경매 전에 압류하여 사전에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다.

잔류농약검사는 이회학적 실험 중에서도 가장 고난이도의 검사기술을 필요로 하는 실험 중 하나로 전처리 과정과 기기분석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처리 과정은 농산물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유기화합물 중에서 아주 작은 양의 농약성분을 따로 분리해 내는 단계이다. 보통 농약 잔류량은 농산물 1kg에 농약 몇 mg이 들어 있는지로 나타내니까, mg이 1/1000g 이라는 계산을 대입하면 그야말로 모래 속에서 바늘을 찾내는 것과 같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분석장비를 이용해서 어떤 농약이 얼마만큼 들어 있는가를

측정한다. 따라서 검사소는 212종의 농약성분을 3시간 안에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된 최첨단의 검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화학적으로 특성이 비슷한 농약들끼리 끓어 9대의 분석장비에 주입하고, 실험자는 각자 자기가 맡고 있는 분석기기 앞에 앉아 모니터를 통해 나타나는 분석 결과들을 해석하고 정리한다. 그런데 데이터 분석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발견되면 상황은 다시 복잡해진다.

부적합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처리부터 다시 검사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사결과에 따라 생산자 개인에게 매우 무거운 경제적, 형사적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다시 검사를 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반드시 재확인하는 것이다. 재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전량 압류하여 폐기장으로 보내 파쇄한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 입양 후 다시 아이 버리는 파양 절차 더 까다롭게 해야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파양 당한 아이와 보육원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고아 수출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입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그나마 단비 같은 일이었는데, 이처럼 입양 후 다시 아이를 버리는 파양이 갈수록 늘어나 있다고 하니 놀라울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고아였던 아이가 입양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면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나마 자기 현실을 인정하며 자랄 것이다. 하지만, 기껏

입양을 했던 가정에서 파양을 해버린다면 그 아이가 겪을 마음에 삼쳐와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클 것인지는 굳이 말 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얼마 전 7살짜리 아이가 입양을 한지 1년 반 만에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따르지 않아서라고 한다. 이런 이유 말고도 입양 후 잘 자리던 아이가 자신을 기르고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걸 안 뒤 문제가 되거나, 아이를 키우던 입양 가정에 우한이 들게 됐다. 또는 말

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갖은 이유로 파양하는 사례가 늘어난다고 한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아이를 입양한 이상 그 아이는 평생 자기 배속으로 놓은 친자식이라 생각으로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파양의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는 구청에서 파양신고서 하나만 작성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하지만, 파양도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어린이의 인권을 고려해 법원에서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게 좋을 듯하다. 그래서 만약 부모로 파양함으로써 아이들이 상처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유민규·목포시 수강동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건, 민족, 민족 등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222-4918 사전 부 2200-6971 전화 02-222-4918 e-mail opinion@kwangju.co.kr

## 시설

## “5·18 진범이 유언비어”라는 노태우 망언

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망언을 늘어놨다. 그는 9일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80년 광주시내의 진범은 유언비어”라며 “경상도 군인들이 광주시민들 씨를 팔리려 왔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들은 시민들이 무기고를 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민중항쟁 유혈진압의 책임을 유언비어 탓으로 돌린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미 밝혀진 진실을 두고 역사에 대한 왜곡을 서슴지 않다니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5·18 당시 유언비어가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유언비어가 신군부에 의해 유포됐다는 점이다.

진압을 위한 충정작전 상보, 전투상보, 육군계엄상황일지 등 군 관련 문서에 신군부가 유언비어를 조직적으로 유포했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지 않는가.

5·18 민중항쟁에 대한 유혈진압 역사 5·17 비상계엄확대 등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정권 탈취 음모였다는 게 이미 백일하

에 들어난 사실이다. 그럼에도 유언비어 운운하는 것은 신군부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자 이를 광주시민에게 떠넘기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

여기에 최근 5공(共)의 핵심세력으로 전두환씨 재임시 경호실장을 지난 한현태의 국립묘지 암자 결정과 기습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전두환씨가 희고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예상과 여길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일련의 망언과 차례로 5공 세력들이 역사의 왜곡을 통해 정당화하겠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를 경계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국민적 여론을 통한 5공 세력의 음모를 분쇄해야 한다. 방관한다면 군사카테타에 대해 정당화이며,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이자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것이다.

5·18 영령들이 아직도 구천에서 떠돌고 있다.

## 청소년들이 ‘전자담배’에 끼들고 있다니

요즘 들어 청소년들 사이에 ‘전자담배’ 흡연이 유행하면서 니코틴 과다 흡입 등으로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한다.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쉽사리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데다 나이가 낫지 않아 학교나 길거리 등 어디서든 담배를 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담배는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좀먹는 유해약물로 새삼 강조할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연교육이고 그 최전방 역할은 학교가 감당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짜여야 한다.

가장에서도 자녀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지도가 필요하다. 설마 내 자식은 담배를 피우지 않겠지 하는 부관심 속에 니코틴에 끌려들어 간다. 당국은 허술한 구매경로로부터 손질해야 한다. 불법 사이트 운영에 대해선 즉각적인 차단과 함께 운영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흡연이 증가하는 것은 어른들의 직무유기인지 알 수 없는가.

## 無等鼓

로 북진하면서 다른 두개의 기상전선과 충돌해 발생하는 초강력 태풍으로 100년 만에 한번 올라 말까한 파괴력을 자녔다.

이 소설은 2000년 조지 클루니 주연의 ‘페펙트 스톰’이란 영화로 제작돼 전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세비анс은 소설 ‘페펙트 스톰’에서 주인공이 30m에 달하는 파도를 묘사하는 장면이다. 이 소설은 1991년 10월 발생한 ‘안드레아 게일’호의 실종사건을 다룬 실화를 바탕으로 써졌다.

그럼에도 학생들 사이에 전자담배의 구조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고자 한다. 가기도에 이번 태풍 ‘무이파’의 위력이 마치 페펙트 스톰과 같았다고 한다. 신용등급 강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미국에선 미국의 재정위기마다 중국의 성장 풍운, 유럽의 재무위기 등이 더해질 경우 페펙트 스톰이 발생해 세계 경제가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화 페펙트 스톰이 주는 교훈은 자연재해 발생은 막을 수 없지만 대비하면 재난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겹히 한 자세로 늘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다.

페펙트 스톰은 허리케인 대서양으로 정필수 사회부차장 bungy@kwangju.co.kr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tbl\_info cols